

조선시대 생활 속 접했던 서적 전주 완판본으로 들여다보다

▶ 완판본문화관 상설전시

동양 최고 한의학 의서
동의보감의 신형장부도
복각 인쇄본 등 선배

완판본문화관(관장 안준영)은 상설전시 '조선시대 생활 속, 전주 책 완판본'을 갖는다. 오는 8월까지 이어질 이번 전시는 일반 관람객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전주의 '완판본'을 관객의 눈높이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기획 및 구성했다.

전시에선 전라 감영에서 간행된 동양 최고의 한의학 의서인 '동의보감의 신형장부도(身形藏腑圖)' 복각 인쇄본과 관찰사의 살인 사건 지참서인 '증수무일록언해(增修無日錄參解)'에 수록된 신체모형의 인쇄본을 선보인다.

또한 민간 출판업자인 서포(책방)에서 발간된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완판본 한글고전소설, 편지쓰기 방법, 장례와 제사의 절차, 생활 백과용 도서, 사서삼경, 의서 등에 대한 서책도 전시된다. 이는 전라감영과 방각본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조선시대 생활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전시를 구성했다.

전시와 함께 오는 3~4일에는 입춘을 맞이한



완판본문화관(관장 안준영)이 상설전시 '조선시대 생활 속, 전주 책 완판본'을 갖는다. 이번 전시는 조선시대 생활 속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던 서책을 모아 지식과 정보를 나누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완판본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기획했다.

무료체험 행사도 열린다. 완판본문화관은 관람객들에게 '입춘대길 건양대경(立春大吉 建陽多慶)', '입춘지절 만사형통(立春之節 萬事亨通)' 문구가 새겨진 '입춘첩'을 나눠줄 예정이다.

안준영 관장은 "이번 전시는 조선시대 생활 속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던 서책을 모아 지식과 정보를 나누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완판본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문화터미널 2호 안성' 5일 개소

전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병천)은 지난해 10월 개소한 '문화터미널 1호 - 교창'에 이어, 오는 5일 '문화터미널 2호 - 안성(무주군)'의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문화공간으로의 탈바꿈을 시작한다.

'문화터미널'은 문화기반을 통한 지역발전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전북관광 이미지를 제고하는 등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취지로 재단과 전북도가 공동 진행한다.

이를 위해 재단은 버스를 기다리고 타는 터미널의 본래 기능 외에 주민들의 문화예술 자발적 활동을 위한 문화적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문화터미널 운영 및 조성'은 1차적으로는 기존의 낙후된 공공버스 터미널의 환경과 시설을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개선하는 환경적 개선을, 2차적으로 터미널을 이용하는 지



역주민과 이용객에게 터미널이란 공간을 문화예술 향유 및 주민 참여의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문화적 개선으로 이뤄진다.

이날 개소식 행사와 함께 1층 작은 전시관에서 전라북도에서 활동 중인 문재성 작가의 작품 전시회가 열릴 예정이다. 작가는 무주의 대표적 상징물인 반딧불이를 소재로 한 자연의 서정적 감성을 수채화색화로 펼쳐 보인다. /정해은 기자

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 창립식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 창립식이 최근 전주 롯데7080난타에서 열렸다.



김양욱 회장



김성희 이사장

정동영 국회의원, 김양욱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 회장, 김성희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 이사장 등이 참석한 이 행사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공익법인으로 전라북도지역 문화예술분야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들의 역량개발, 재능발굴, 지역사회 봉사를 하기 위한 것.

이 행사에는 1부 상연례를 시작으로 2부 개회식, 임명식, 창립총회, 3부엔 축하공연 및 만찬으로 이어졌다. /이상민 기자

박물관·미술관인 도지사상 수상자 선정

(사)전북박물관미술관협회는 '자랑스러운 박물관인·미술관인 전북도지사상' 수상자로 남원향 토박물관 이경석 학예연구사와 고통미술관 김



김관순 관장



이경석 연구사

원순 관장을 선정했다. 미술관인상을 수상한 김원순 고통미술관 관장은 2007년 고통아트미술관을 건립해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박물관인상 수상자인 이경석 남원향토박물관 학예연구사는 2002년부터 남원시 학예연구사로 공직생활을 시작, 현재 남원향토박물관에서 근무 중이다. /정해은 기자

히어로물부터 다큐멘터리까지 |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 '시네마펀드' 프로젝트 선정작 발표

'괴력난신'·'육창'·'이장'·'불숨'·'학교 가는 길' 등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종직)는 제10회 전주프로젝트마켓에서 선보인 '전주시네마펀드' 프로젝트 선정작을 발표했다.

선정 작품은 '괴력난신'(감독 정재훈), '육창' 감독 심해정, '이장'(감독 정승오), 다큐멘터리영화 '불숨'(감독 고희영), '외길식당'(감독 박강아름), '학교 가는 길'(감독 김정인) 등 총 6편이다.

'괴력난신'은 저예산 영화에서 보기 드문 소재인 괴력 히어로물에 한국적 정서를 더한 작품이다. 정재훈 감독은 장편 데뷔작 '호수길'(2009)과 '도둑이 언덕에 난기류'(2017) 등으로 국내 유수의 영화제에 초청받은 바 있다.

심해정 감독의 첫 장편 프로젝트 '육창'은 육창을 잃고 있는 환자를 둘러싼 주변인들의 심리를 주도면밀하게 따라가며 현대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 감독

은 단편 '물구나무 서는 여자'(2015)와 '동백꽃이 피면'(2016) 등으로 전주국제영화제를 비롯한 국내영화제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장'은 아버지의 묘를 이장하기 위해 모인 가족들의 이야기를 통해 각박한 현대인들이 일상 속에서 잊고 지내는 소소한 삶의 의미를 곱씹게 만든다. 단편영화 '열여덟 반'(2013)으로 전주국제영화제 한국단편경쟁에 초청과 함께 2016년 '새들이 돌아오는 시간'으로 미장센단편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 등을 수상한 정승오 감독의 작품이다.

고희영 감독의 '불숨'은 '이도다람'이라는 일본 국보그릇의 완성을 위해 불과 사투를 벌이는 한 도공의 예술세계를 담아낸 다큐멘터리 영화다. 지난 17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해녀의 삶을

집중 조명해 '불숨'으로 경쟁부문 심사위원 특별언급과 CGV배급지원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는 감독은 전작의 연장선으로 작업이 가진 숭고한 의미를 전한다.

'외길식당'의 감독 박강아름은 자신이 영화 전면에 직접 등장, 남편과의 성 역할 전복을 통해 젠더의식에 대한 색다른 접근을 시도한다. 그는 '박강아름의 가장무도회'(2015)로 암스테르담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신인다큐멘터리경쟁 섹션 초청과 같은 해 인도포럼에서 올해의 돌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학교 가는 길'은 특수학교 설립을 두고 15년째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장애인 학부모들과 지역주민, 정치인의 갈등 관계를 담아낸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다. 김정인 감독은 2008년 '하늘에 계신'으로 서울국제사랑영화제 대상을 수상했

으며, '내 사람 한옥마을'(2016)로 서울환경영화제 한국환경영화경선 부문에서 특별 언급됐다.

전주시네마펀드는 지난해 11월 공모를 통해 접수된 131편을 대상으로 영화감독과 프로듀서, 평론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단은 "올해 선정된 작품은 보여주고자 하는 바를 자신만의 화법을 통해 구축했으며 나아가 현실적으로 완성 가능성과 결과물에 대해 기대감을 준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이들 작품은 오는 5월 6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제10회 전주프로젝트마켓 프로모션 행사에 소개되며, 이 중 한편은 1억 원 내외의 제작 투자를 받는 전주시네마프로젝트(JCP)로 선정될 기회를 얻는다. /정해은 기자

www.jjnh.co.kr

축! 제4회 무주군체육회장배 전국스키·스노보드대회

농민조합원에게 농사연금을 드리는 전주농협!!!

조합원님!! 자식 같은 농산물 모두 팔아주는 농협을 만들겠습니다.

전주농협 산지유통센터 신축으로 전주시 통합마케팅 시스템 구축 로컬푸드직매장 10곳 개소로 영세농업인 소득향상

상임이사 (신용)오택식
상임이사 (경제)나병훈
이사 김대진, 김양순, 김종표, 김태영, 김형수, 송재규, 신동선, 오남석, 유석용, 이상현, 이성광, 주동현
사외이사 김병운, 최정자
감사 정무성, 조미희

농민과 도시의 상생협력을 지향하는 전주농협 Good 농산물